

# GS건설(주) 안전관리 자율·모범현장 제도

**1. 개요** 현장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잦은 안전점검으로 인한 현장 업무손실을 줄이기 위해 탄생한 『안전관리 모범 및 자율현장 제도』는 현장의 공사 난이도, 공사 특성 및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각 현장을 4가지 Type으로 구분하여 지도·관리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기존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이 큰 현장에 대해 집중 지원·관리하였던 “안전관리 집중현장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본사 안전관련 지원 조직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집중시켜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현장별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운영** 공사 난이도, 공사 특성 및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모범현장 ▲자율현장 ▲보통현장 ▲집중관리현장으로 각 현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안전관리 자율현장’은 현장조직 운영, 안전관리활동, 제도 등 관리, 기술 측면에서 회사 안전지침을 현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자 하는 현장으로 현재 30개 현장이 자율현장으로 지정되었으며, 자율현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현장은 안전팀에 자율현장 지정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안전관리 자율현장으로 지정되면 각종 본사 안전점검이 면제되고 자율현장으로 6개월 이상 지속한 후 안전관리 모범현장 지정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안전관리 모범현장으로 승격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안전관리 모범현장은 안전관리 상태가 안전관련 법규정 이상을 충족하고 당사 안전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당사 현장 중 안전관리 상태가 가장 우수한 현장을 지정한다. 현재 사업본부별로 1개씩 현장이 선정되었으며 모범현장으로 인증이 되면 대표이사 인증패수여와 각종 안전점검, 안전감사가 면제

"고객과 함께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안전을 선도하는 기업, GS건설(주)에서는 자율안전문화 정착에 발걸음 나르고 있다. 지난 9월에 시작한 "안전관리 자율·모범현장 제도"가 그 중 하나로 타율적이고 강압적인 안전에서 탈피하고 있다.

〈표〉 안전수준에 따른 현장 차등관리

구분	기준	INCENTIVE	PENALTY
I 안전관리 모범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운영, 활동, 제도 등 관리, 기술 측면에서 회사 안전지침을 충실히 운영하는 현장</li> <li>현장 상태가 법 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현장</li> <li>안전팀 및 사업본부에서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판단하는 현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 안전평가 점검 및 감사 면제</li> <li>사업본부, SQ 안전점검 제외</li> <li>안전관리 모범현장 인증서 및 현판 수여</li> <li>모범현장 지정 후 무사고로 매 1년 경과 시 "안전관리 모범현장장" 포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 사항 발생 시 모범 현장 인증 제외</li> <li>현장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li> <li>대관 점검으로 벌금·과태료 부과 시</li> </ul>
II 안전관리 자율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자 하는 현장</li> <li>현장</li> <li>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최근 6개월 이내 안전사고 발생 현장</li> <li>기타 본사의 지원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본부, SQ 안전점검 제외</li> <li>자율 현장으로 선정 후 6개월간 무재해 달성 시 모범 현장으로 승격 기회 부여 (신청 시 모범현장 승격 여부 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 사항 발생 시 자율관리 현장 제외 및 현장 가중제</li> <li>안전 감시기 중요 안전미비 사항 지적 시</li> <li>현장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li> <li>대관 점검으로 벌금·과태료 부과 시</li> </ul>
III 안전관리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 모범 현장, 자율 현장, 집중관리 대상 현장 이 아닌 현장</li> <li>현장 공사의 위험도나 안전관리 활동이 보통인 현장으로 SQ 및 사업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본부, 기술안전팀, SQ에서 일상 현장 점검 및 지원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 상벌 기준에 준함</li> </ul>
IV 안전 집중관리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 집중관리 대상 평가표에 의하여 선정된 현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본부, 기술안전팀, SQ에서 현장 밀착 지원 강화</li> </ul>	

현장 5개, 자율현장 30개를 선정하였고, 지난 10월에 3개 현장이 자율현장으로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다. 본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현장을 최하 "안전관리 자율현장"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나 현재 25%만이 자율현장 이상이다. 그러나 연간 목표량은 없다. 강압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율적인 제도이기에 기반과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진정한 안전관리 자율정착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율적인 안전문화는 소속 현장에 대한 자부심과 하고자 하는 의지로 기업 경영에 또 다른 효과로 나타나며, 안전 실적에 있어서도 두자리수의 중대재해가 한자리수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재해건수를 분석해 볼 때 작업관련성 재해는 줄어들어 경미하고 단순한 재해가 대부분으로 질적으로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재 재해율 0.18%로 금년 말이면 0.12~0.14%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007년에는 인간존엄을 중시하는 안전 차원에서 근로자와 함께 하는 감성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GS건설(주)는 전 현장 모범현장화를 위해 오늘도 창조적인 안전을 전개하고 있다. 

〈최종덕 기자〉

되며 정기 안전평가 점수도 사업본부 최고 점수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또한, 안전관리 모범현장으로 1년 동안 유지될 경우 우수조직상에 준한 포상도 수여된다.

### 3. 맺음말 GS건설(주)에는 140여개의 현장 중 모범